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지난 1월 24일~25일 프랑스 리옹에서 제 10회 월드빠띠세리 대회가 열렸다.
97년 9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세계 선진 기술을 확인하고 우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대회 참가 선수단 및 참관단과 함께 이번 대회를 정리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장소 :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사무실
- 일시 : 1999년 2월 10일
- 참석자 : 권상범 회장(월드빠띠세리 선수단 단장 겸 심사위원)
서정웅 사장(코르베르그과자점)
박찬희 사장(브리앙과자점)
<선수단>
장복용(설탕공예부문, 마산 코아양과)
우원석(초콜릿부문, 빼에스몽떼)
정해철(아이스카빙부문,
호텔인타켄타넨탈)
- 사회 : 홍성대 취재부장

● 사회자 :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나라가 참가했던 제 10회 월드빠띠세리 대회를 정리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금번 행사는 협회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인솔 단장 겸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신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권 회장 : 우리 나라는 지난 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번에 비해 이번 대회는 월드빠띠세리의 대회장인 빼아송씨가 채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전체적인 기술수준이 매우 향상됐고, 각 부문의 기법 또한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평입니다. 우리도 이번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목표한 대로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회를 준비하고 선수들 역시 후배 기술인들의 지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술수준 향상에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이번 대회를 위해 선수단이 흘린 땀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높이 평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참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장복용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대회 당일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했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선수들 모두 작년 6월부터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1회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하여 노하우가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다음 대회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준비기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우원석 : 전대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대회에 참가한 후 기술적인 벽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차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회의 참가 경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음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정해철 : 대회 참가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베이커리 분야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도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기간을 더 늘리고 지금부터 다음 대회를 차분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자** :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월드빠띠세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경연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권 회장** : 월드빠띠세리는 제과제빵 분야에 나름대로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만 참가권이 주어지는 권위있는 대회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미국, 이태리, 벨기에, 일본 등 18개국이 참가했는데 좋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참가권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정웅** : 우리가 평상시 제품을 만들 때는 예술적인 면보다 상품적인 가치에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상품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드빠띠세리는 이 두 가지를 고루 겸비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찬회** : 월드빠띠세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올해까지 20년이 된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저도 95년 빵부문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빵이라는 것이 양과 자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편이어서 유리한 반면에 유럽은 과자의 역사가 깊어 참가 선수들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서정웅, 박찬회 사장님께서서는 전 대회에 선수로서의 참가 경력도 있고 이번에도 참관단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우리 팀의 전력을 분석해 주십시오.

● **서정웅** : 우리가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출전을 했어요. 그나마도 선수단이 교체되면서 노하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기술연마를 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또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수단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많은 국내 경연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 '백견이 불여일습'이라고 하고 싶어요. 즉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게 낫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의 연습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나아가 '백습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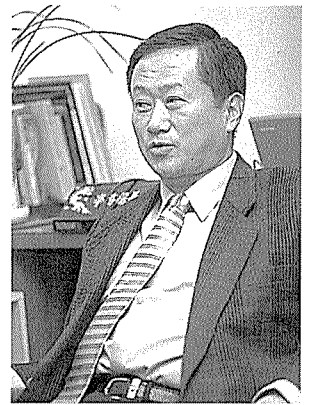
● **박찬회** : 작년 12월 리허설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시간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문별로, 설탕공예는 디자인이 너무 복잡했고 초컬릿 공예는 예술적인 표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스카빙은 아래 부분이 너무 둔했어요. 그리고 디저트에 모두 인삼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품마다 각각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특히 유럽쪽의 향신료를 이용한 제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대회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 **장복용** : 설탕공예 분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가 부족한 편이고 이에 관한 자료도 거의 없어 일본의 관련 서적으로 연구해야 했습니다.

설탕공예는 상당히 섬세한 분야입니다. 설탕의 농도나 습도, 온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틀려지고 특히 섬세함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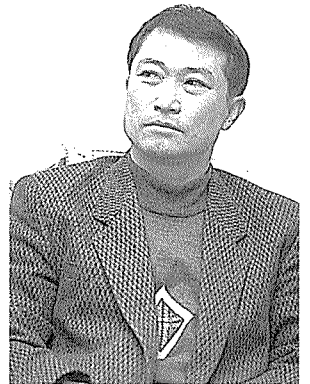
사실 이번 대회의 기술적인 경향은 프랑스에서 시도한 새로운 기법을 제외하곤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법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도의 기술보다는 우선 기초를 튼튼히 다져 앞선 제품을 모방하고 미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 같습니다.



권상범 회장



박찬회 사장



서정웅 사장



홍성대 부장



우원석 사장

● **우원석** : 초컬릿 공예는 몰드를 사용하는 것과 조각하는 것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몰드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프랑스는 조각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나라도 부분적으로 몰드로 틀을 만들었지만 대회현장에서는 섬세한 부분을 조각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초컬릿을 녹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독일은 템퍼링용 장비가 따로 있어서 이미 템퍼링이 끝난 초컬릿을 몰드에 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간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기계나 장비의 차이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미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도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선수 3명은 MOF 12명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한 사람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지요. 이런 여건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대회의 참가 경험자들이 훈련 현장을 찾아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정해철** : 아이스카빙에서는 전체적으로 날렵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참가 전에 이번 작품과는 별도로 피리를 부는 비전상을 연습해봤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국적이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트레이너가 원래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다시 말상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수상한 작품을 보니 시각적으로 날렵하면서도 힘이 있는 조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대회였습니다.

● **사회자** :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상의 미숙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권 회장** : 대회 참가 전까지 작품을 최종적으로 결정

짓지 못하고 대회 직전까지 수정을 반복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지적응을 위해 1주일전에 출발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회 2~3일 전에 도착해 최종 점검만 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걸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회전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 부음으로써 체력소모가 컸어요. 그리고 준비기간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많습디다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통상 차기대회인 2001년 대회를 위해 올 3~4월에 서류심사와 선발전을 통해 선수 선발을 마치고 충분히 연습할 여유를 갖거든요. 똑같이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대회 참가 선수를 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정웅** : 지난 대회에는 16개국 이 참가했고 이번 대회는 18개국 이 참가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대회를 참가해 보니 준비가 많이 미흡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이스카빙만 해도 아이스박스 와 진열대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이스카빙 부문에서 보면 일단 장비를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비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제품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 **박찬희** : 설탕공예 부문은 대회 규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첫째,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현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현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막상 대회 현장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우리 스스로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장복용** : 스케줄을 잡을 때도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대회를 준비한 것도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케줄을 짜고 적어도 대회 한달 전에는 작품이든 장비든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합니다.

● **우원석** : 분명히 현재의 우리 수준과 세계적인 기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만 해도 각 나라별로 새로운 기술이 많이 선보였는데 선수들은 그 만드는 과정이나 방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신기술을 다음 선수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 **정해철** :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10여 년간 거의 매일같이 얼음을 깎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실제 대회에 참가

해 보니 우리의 식견이 부족함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사 위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사회자** : 심사 얘기가 나왔는데 월드빠띠세리 심사의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권 회장** : 심사 기준만 보면 우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언어문제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유럽, 특히 프랑스 기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그들의 심사 취향이나 경향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업체를 선도하는 제과인들의 깊은 관심과 호응만 있다면 프랑스의 유명 기술인을 초청하여 기술도 배우고 또 그들과의 유대도 돈독히 함으로써 점차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술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그 덕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참가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앙트르메의 경우 시각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장소는 매회 같기 때문에 리움의 향신료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곳의 입맛에 맞게 제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으니 좀 더 치밀하게 준비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대회의 경향과 우리의 전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결과까지 좋았다면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여건으로 볼 때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에 얽매일 게 아니라 향후 대회를 위한 준비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권 회장** :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현지를 이해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훌륭한 기술인들을 초청해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술에 대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차기 대회때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서정웅** :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회를 국내에서 치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한데, 선수 선발을 엄격하게 하고 선수들이 연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참가하는 것이라면 지회장 몇 분이라도 함께 참관하는 등 관심을 가져 주었어야 했지만 이번의 경우

는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좀 더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박찬희** : 작품 계획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술성이 있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작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선발전을 빨리 치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는 반드시 그 분야에 재능있는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하고 선발 후에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커야 합니다.

● **장복용** : 이번 참가 선수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차기 대회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회에서 쌓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

● **권 회장** : 이번 같은 경우 작품의 소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주변을 잘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참가했던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기 대회 선수단이 선발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트레이너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또 선수들도 선발이 된 후에야 대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상시 그런 대회를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 **사회자** : 사실 대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기술인들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월드빠띠세리 설명회 겸 기술경연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가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



장복용 상무



정혜철 실장